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송년주일 : 오늘은 201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잘 갈무리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예배 : 송구영신예배가 31일(목)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늘양식과 기도서 : <하늘양식>과 <헤른후트 기도서>를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 2015년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재무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은 내년도 1월부터 가능합니다.

신천임원교육 : 중구용산지방회에서 주관하는 2016년 신천임원교육이 오늘 오후4시 정동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신천집사, 신천권사님들은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 여선교회에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별세 : 방극숙 권사님께서 24일(목)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신앙실천 :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각자 기도문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렘 31:7-14 / 시 147:12-20 엡 1:3-14 / 요 1:1-9	2부 예배	시 96:1-13
-------	---	-------	-----------

오늘 식당 봉사 : 박영신 조순덕 허명선 김정미 이은경 전정현 김정주 김종락
 다음 주 식당봉사 :
 오늘설거지봉사 : 교사
 다음주설거지봉사 : 청과7속 (30대 모임)
 커피 판매 봉사 : 4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송년주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에도 우리를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
 다. 때때로 말씀을 통해 깨우쳐주시고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결을 튼튼히 지키며 함께 길을 가는 이들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힘이 되었습니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살아감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새해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겠습니
 다.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60:1,2 인도자
- ♣ 교 독 문 57. 시편130편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대표기도 윤석철 장로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함께
- ♣ 성경봉독 I. 삼상 2:18-20 골3:12-17 눅2:41-52 리 봄 선생
 II. 전 1:1-11 이부용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천사의 합창 찬양대
- 말 씬 I. 평화를 가득 채우고 김재흥 목사
 II. 헛됨을 넘어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구재원	김경혜	김근종	정옥영	김기석	김희우	김남중	오복선	김명순	이교영
김문주	김성우	박유경	김세진	김정신	김혜정	김정훈	이진영	김종철	고영애
김주영	노우영	김중현	성귀옥	김지윤	김정영	김지혜	김철수	유영남	김현동
오유경	김훈동	유경순	박석희	조항미	박옥순	박준희	이기분	변재민	이소혜
신정훈	이은미	우순덕	윤성희	김윤정	윤주원	최윤선	이경남	이성원	이영욱
장은주	이유진	이응석	이은경	이재문	이준림	이진영	한양미	이현숙	임고운
오재형	임승동	백혜숙	임영	정경례	임형욱	장원호	박성희	정원석	김현영
정현선	유병선	조문규	진정숙	주경진	이윤	최미자	최	최철수	곽관희
한상의	정영선	허신열							

감사헌금

권대성	김지현	권민준	권혁래	김혜순	김극	김명순	이교영	김정린	김종수
이순정	김태정	박순섭	권미숙	박재영	이현정	배삼순	서정순	안정준	양연희
유하영	윤정덕	구성실	이범석	류정욱	이소영	이용현	임선양	신현숙	주현철
강미선	참빛찬양단	최금순	황경순	무명10					

녹색꿈헌금

강금분 김정현 이은아 김향자 무명6

생일감사헌금

김지호 전혜리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시온	권미숙	박미영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저녁 무렵

열정이 식은 뒤에도
 사랑해야 하는 날들은 있다
 벅찬 감동 사라진 뒤에도
 부둥켜안고 가야 할 사람이 있다

끓어오르던 체온을 식히며
 고요히 눈감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로
 쓸쓸히 날아가는 트럼펫 소리

사라진 것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풀이란 풀 다 시들고
 잎이란 잎 다 진 뒤에도
 떠나야 할 길이 있고

이정표 잃은 뒤에도
 찾아가야 할 땅이 있다
 뜨겁던 날들은 다시 오지 않겠지만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야 할 사랑이 있다

- 도종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549. 내 주여 뜻대로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또한 무기력의 수렁에 빠져 살지도 마십시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삶을 조율하며 사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사십시오.	
다 함께:	아멘.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가는 기쁨과 보람을 맛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이진영 집사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박시내 집사

12월	영접위원	한완식 송형운 추헌영 하미림 박진숙
	헌금위원	윤석철 김혜정

어떤 바람

- 호시노 도미히로 시, 홍순관 개사 || 한경수 곡 -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 바람이

꽃에 불면 꽃바람 되고요

음 바람은

방금 나를 지나간 그 바람은/ 어떤 바람 됐을까

시대의 죄가 사무친다. 뛰어노는 아이들을 떼땀이 볼 수가 없다. 엄마 품에 안겨 동그란 눈을 뜬 아가의 눈을 차마 또렷이 대할 수가 없다. 우리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마주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기억한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죽음의 나이를 세는 것이나, 자신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깊은 관심과 세심한 살핌 없이는 어렵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가 폭풍처럼 지나간다. 어제를 지나 오늘, 오늘을 건너 내일. 그냥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오늘은 그냥 오늘이 아니라 백년을 걸어온 오늘인 까닭이다.

지구에 사는 인류는 ‘발전’이라는 명분과 ‘현대화’라는 무기를 앞세워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이다. 기술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부를 향해 욕망의 담을 넘는다. 그리하여 만나는 것은 탁한 공기, 썩은 물, 마른 땅, 사라지는 꽃, 갈라진 대지, 시드는 지구의 얼굴...

이런 모순들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인간은 오늘도 밤낮을 모르며 집을 짓고, 산을 없애고, 도로를 닦고, 강을 막고, 생산하고 또 생산하고...

‘시대의 바람’이 지나간다. 각자의 인생에 ‘시간의 바람’이 분다. 이 시대는 제 숨을 쉬고 있는 걸까. 꽃에 바람 불어도 그 향기 없고, 들

판에 무명초는 춤추지 않는다. 아침에 불어도 시작은 없고, 저녁에 불어도 썩은 없다. ...

거대하고 막막한 괴물인 자본주의 앞에 서서, 그 끝없는 욕심과 폭력을 일상으로 대하며 한심한 무력감으로 비현실 같은 현실의 구렁텅이를 빠져나올 묘수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오마르 카이얌의 허무에 사무친 ‘루바이야트’를 되된다.

“아, 인생 기록을 다시 고쳐지었으면, 쓰여진 기록을 송두리째 지웠으면. 이 마음에 꼭 들도록 다시 고쳐지었으면...”

창조 이후 세상을 다시 고쳐 쓸 수 있다면, 아니 적어도 내 인생 정도만이라도, 그도 아니면 한 삼십 년쯤만이라도 다시 살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은 허무맹랑한 기도만은 아니다. 잘못 살아온 한 인간으로서 절절한 고백이요, ‘돌아봄’이다. 이만치 와 있는 세상을 보며 멈춘다. 이 세상 달리는 모든 것들에게 멈추어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답 대신 마른 모래바람만 일고 지나간다. 정치도, 경제도, 예술도, 종교도 계속 걷고 싶다면 지금은 멈춰야 한다. ...

그러나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 추하고 나쁜 것들을 다들이마시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 뿔어내주는 나무들이 있어서다. 그래서 숲은 위대하고 아름답다.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숲은 다름 아닌 예수다. 사람으로 오시며 고독의 바람으로, 빈들을 걸으시며 침묵의 바람으로, 빈자들에게 위로의 바람으로, 돌무덤에서 부활의 바람으로 일어나신 예수.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이시여! 있는 듯 없는 듯 바람 같은 나의 님이여!

이 부박한 시대를 건너가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될까? 역사와 시대의 쫓겨나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한다. 오래 걸리지만 확연히 드러난다. 연민과 진심으로 흐르는 눈물의 코드나 리듬은 국경과 시대를 넘어 다르지 않다. 이 눈물이 이 시대를 지나갔으면 좋겠다. 일 할 밖에, 농부처럼 입 다물고 허리 굽혀 일 할 밖에.

아,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